

삼성 포수 이지영 “6월 이후 4할 타율, 폼 바꾼 덕분”

Mr. 베이스볼

삼성 포수 이지영(31)은 요즘 공수를 겸비한 포수로 각광 받고 있다. 6월 이후 타율이 0.408로 10개 구단 전체 타자들 가운데 2위다. 4일 대구 LG전에선 시즌 첫 홈런도 신고했다. 시즌 초반에는 진갑용, 이흥련과 번갈아 마스크를 썼지만, 요즘은 매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다. 이제 삼성의 확실한 차세대 주전 포수로 자리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물론 스스로는 “여전히 주전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배우면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손사래를 친다. 그러나 류중일 감독과 김한수 타격코치, 강성우 배터리코치는 모두 이지영의 성장세에 흐뭇해하고 있다. 이지영은 그저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좋은 포수가 되는 게 목표”라며 웃어 보였다.

도루저지율 1위는 약점 없는 투수들 덕분
육성선수로 삼성 입단해 주전포수 굳히기
작년보다 더 좋은 포수가 되는 것이 목표
포수 시작 이유? 알아있게 편해보여서...



삼성 이지영은?

▲생년월일=1986년 2월 27일 ▲출신교=서화초~신흥중~제물포고~경성대 ▲키·몸무게=178cm·83kg (우투우타) ▲입단=2008년 삼성 육성선수 ▲2015년 연봉=1억5000만원 ▲2015시즌 성적=타율 0.326 (175타수 57안타), 24타점, 15득점, 도루저지율 0.378 (37번 시도·14회 저지)



삼성 이지영은 6월 이후 타율 4할대의 맹타를 휘두르며 공수겸장 포수로 각광받고 있다. 삼성의 차세대 주전 포수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그는 “매년 점점 더 좋은 포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6월 이후 타율이 4할을 넘네. 전 구단 통틀어도 선두권입니다.

“아, 정말 그런가요?(웃음) 아무래도 김한수 코치님과 상의해 폼 바꾼 덕분인 것 같아요 (김 코치는 “시즌 초반부터 이 폼, 저 폼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다가 마침내 지금의 타격폼을 찾아 정착하게 됐다”고 귀띔했다). 처음에는 다리를 들고 나가다 보니 배트 스피드가 느려지고 하체도 잘 못 써서 안 좋은 볼에 계속 속게 됐는데, 요즘은 다리가 덜 빠지고 몸이 덜 나가니까 공을 더 오래 보고 좋은 타이밍에 치게 된 것 같아요. 몸을 잡아놓고 치니까 하체 힘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좋은 타구들이 나오는 효과를 본 게 아닐까 싶어요.”

-요즘 야구하는 게 재미있었어?
“방망이가 잘 맞아서 좋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포수라서 최근에 팀이 점수를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포수로서 실점을 적게 하는 게 제 의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냥 좋아하기에는 기분이 좀 그렇죠.”

-이제 진갑용 선수의 뒤를 잇는 주전 포수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전 아직 그 위치까지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전 포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많이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그러고 있죠. 진갑용 선배님은 저보다 훨씬 위에 계세요. 저는 좀더 위로 올라가야 하는 단계죠. 포수로서도 그렇고, 타격으로서도 그렇고, 저는 앉아서 선배님 하시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웠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타격뿐 아니라 도루저지율도 1위(0.378)에 올라 있던데요.

“그건 우리 투수들 덕분인 것 같아요. 빠른 주자들이 투수들의 버릇을 깨쳐서 많이 뛰는데, 우리 팀 투수들은 그런 부분이 적어서 도루 타이밍을 잘 안 빼앗아거든요. 투수들 덕분에 제가 송구할 때도 영점 몇 초라도 단축이 되니까 제 입장에서 고맙죠.”

-옛날 얘기로 잠시 돌아가볼까요. 야구는 언제 시작했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아버지가 핸드볼선수도 하셨고, 저 어릴 때 태권도 사범이셨어요. 관장님이 ‘애는 운동할 스타일이다’ 하셔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태권도를 시키려고 하셨는데, 친구 아버님이 주변에 야구하는 분들과 얘기하다가 강력하게 권유하셔서 열떨결에 하게 됐죠.”

-야구가 재미있었나요?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했으니까 재미있었죠. 포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때 제가 ‘앉아서 지휘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계속 앉아 있어서 편해 보인다’고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앉아서 하는 게 가장 힘든 거더라고요.(웃음)”

-삼성에 처음 입단했을 때, 이렇게 주전으로 뛴겠다는 목표가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저는 2008년에 육성선수(당시 신고선수)로 들어왔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정식선수가 되자는 게 목표였고, 1년을 육성선수로 있다가 정식선수가 된 다음에는 열심히 해서 1군에 한번 올라가는 게 목표였어요. 2009년 처음 1군에 풀업됐을 때가 진짜 가장 기뻐한 것 같아요. 처음 스타팅 나간다고 했을 때는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요. 그때부터 1, 2군을

갔다 갔다가 군대 다녀와서 2012년 6월 1군에 온 뒤부터는 부상 말고는 안 내려갔죠.”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해 좌절도 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때는 아예 감독님께 야구를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 후로 열흘 동안 속상해서 계속 술만 마셨죠. 그러다가 문득 ‘내가 야구를 안 하면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정신 차렸어요. 그때 삼성에서 계약하자고 전화가 와서 선수 생활을 계속하게 됐어요.”

-그런 일들을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 고마운 분들이 많았겠어요.

“다른 분들도 많지만, 학창시절 감독님들이 많이 생각나요. 고성봉 서화초등학교 감독님, 백승설 신흥중학교 감독님, 황동훈 제물포고등학교 감독님, 윤영환 경성대 감독님, 그리고 코치님들께도 다 감사해요. 저희 집 형편이 좀 어려워서 학교 때 야구하면서 장학금을 많이 받아야 했거든요. 지금도 월급은 다 부모님을 드리고 저는 용돈을 받아서 써요. 그 때 감독님들 도움 덕분에 계속 야구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실 듯하네요.

“네. 집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잘실, 목동, 인천, 수원 경기는 늘 보러 오세요. 집에 가면 어머니가 복분자 같은 것도 끓여주시고요. 부모님이 정말 저에게 튼튼한 몸을 물려주신 것 같아요. 별달리 관리를 하는 게 아닌 데도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덕분에 요즘 게임에 계속 나가면서 좋은 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죠.”

-지금까지 많은 목표를 이뤘는데, 이제 어떤 목표들이 남았나요?

“팀에 입단하고, 정식 선수가 되고, 군대를 상무나 경찰야구단으로 일찍 다녀오고, 1군에서 자리 잡고... 이렇게 하나씩 생각했던 것들을 잘해온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매년 한 해씩 그 전보다 좀더 나아지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수치를 정해놓기보다 그냥 ‘타율, 도루저지율 같은 성적들에서 매 시즌 조금씩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런 생각이지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늘 포수로서 점수를 많이 안 주기 위해 최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투수들하고 조금씩 호흡을 잘 맞춰가고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요?

“개인적으로는 작년보다 더 좋은 포수가 되는 것, 그리고 팀으로서 당연히 5연패죠. 사실 5연패만큼 큰 목표는 없어요. 그 어떤 팀도 따라올 수 없는 일이지요. 저를 있게 해준 대구구장에서 마지막 해라서 우승하면 더 뜻 깊을 것 같아요. 2012년 처음 1군에서 같이 우승하고 지금 3번을 했는데, 올해도 꼭 다시 하고 싶어요. 우승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대구 | 배영민 기자 yeb@donga.com

우즈 '0 보기' 부활 신호탄 그린브라이어 4R 2년만에 보기 없이 3연타파



끝없이 추락하던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2년 만에 보기 없는 경기(Bogey Free)를 펼치며 부활의 신호탄을 울렸다.

우즈는 6일(한국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올드하이이트 TPC(파70)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그린브라이어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골라내 3연타파 67타를 쳤다. 함께 7연타파 273타로 공동 32위에 그쳤지만, 보기를 1개도 하지 않고 경기를 끝낸 건 2013년 8월 바클레이스 4라운드 이후 2년 만이다.

우즈의 추락은 올 시즌 끝이 없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실망스러운 경기내용이 많았다. 1월 피닉스오픈 2라운드에서 82타를 쳤고,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 3라운드에서는 85타, US오픈에서는 첫 날 80타를 친 데 이어 2라운드에서 76타를 쳐 컷 탈락했다. 모처럼 깔끔한 경기를 펼친 우즈는 경기 뒤 “오랜만에 좋은 샷을 했다. 퍼트만 잘못으면 우승 경쟁도 할 수 있었다”며 만족해했다. 우즈는 이번 주 휴식을 취한 뒤 16일부터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리는 시즌 3번째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오픈에 출전한다. **주영로 기자**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 'PGA 첫 우승'

그린브라이어클래식 2차 연장서 승리
인천서 태어난 8세 때 유학 '아마 평정'
프로 전향 6년만에 첫 우승 "행복하다"

“이제야 우승의 맛을 알 것 같다. 행복하다.”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5·캘리포니아·한국 이름 이진명)가 6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그린브라이어클래식(총상금 670만 달러)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6일(한국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올드하이이트TPC(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 대니 리는 선두 그룹에 1타 뒤진 공동 5위로 추격을 시작했다. 버디 4개에 보기는 1개로 3타를 더 줄인 대니 리는 데이비드 헌(캐나다), 로버트 스트럼, 케빈 키스너(이상 미국)와 함께 13연타파 267타로 동타를 이뤄 플레이오프(연장전)에 진출했다. 서든데스 방식의 플레이오프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지만, 그러나 대니 리의 표정은 달랐다. 첫 우승을 바라보는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했다. 1차 연장에서 스트럼과 키스너가 탈락했다. 이어 17번홀(파5)에서 펼쳐진 2차 연장에서 대니 리는 파 세이브에 성공했고, 현은 보기를 적어내 PGA 투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대니 리는 1대1 승부에 강하다. 1990년 인천에서 태어난 그는 8세 때 뉴질랜드로 골프 유학을 떠났다. 아마추어 시절 뉴질랜드를 평정했다. 주니어대회 중 일부는 매치플레이로 열렸는데, 이는 경기보다 이기는 날이 더 많았다. 2008년엔 US아마추어챔피언십에서 타이거 우즈(1994년 우승·18세7개월)가 갖고 있던 최연소 우승(18세1개월)을 갈아 치우며 우승했다. 이 대회 역시 이를 동안은 스트로크 플레이를 치른 뒤 64강부터는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니 리는 6번의 승부를 모두 이겼다.

프로 무대에서 치렀던 첫 연장전에서도 그는 지지 않았다. 2011년 내이션와이드(2부)투어 WNB클래식에서 해리스 잉글리시(미국·PGA투어 2승)를 연장전 끝에 꺾고 우승했다. 이 우승으로 그는 PGA 직행에 성공했다. 나이는 어렸지만 슬한 매치플레이 경험이 플레이오프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대니 리는 아마추어 신분(2008년 US아마추어챔피언십 우승자 자격)으로 2009년 마스터스에 출전한 뒤 프로로 전향했다. 이후 6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다. 3년(2010, 2011, 2013년) 동안은 2부투어에서 생활하며 눈물 젖은 빵을 먹기도 했다.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족함을 채우고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골프를 즐겼다. 대니 리는 우승 직후 “골프를 시작한 이후 한번



대니 리가 6일(한국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올드하이이트TPC에서 열린 미 PGA 투어 그린브라이어 클래식에서 데뷔 6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연장 2차전까지 가는 긴 승부를 펼친 대니 리가 우승제aket을 입고 트로피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최이슬·김서영(미 웨스트버지니아주) | AP/시사**

도 지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골프는 내 직업이고 골프를 사랑한다. 매주 이렇게 출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앞으로가 더 희망적이다. 이날로 24세11개월11일이 된 대니 리는 올 시즌 PGA투어에서 25세 이하의 나이로 우승을 차지한 5번째(패트릭 리드와 브룩스 코헨가, 조던 스피스, 로리 매길로이) 선수가 됐다. 한국 및 한국계 선수로는 통산 9번째 우승자다.

첫 우승의 달콤함을 맛봤지만 아직 만족할 수 없다. TV를 통해 아들 경기를 지켜봤다는

부친 이상주씨는 6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기 뒤 아들이 ‘이제 행복하다’며 좋아했다. 우승을 위해 달려온 만큼 그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앞으로다. 우승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대니 리는 첫 우승트로피를 안고 다음 대회가 열리는 일리노이주 실비스로 이동했다. 존 디어클래식(9~12일)이 끝난 뒤엔 곧바로 전세기를 타고 스코틀랜드로 날아가 생애 처음 디오픈(16~19일) 무대에 나선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